



海外業界動向

HDTV 시장전망

美國의 시장조사회사 Frost & Sullivan 社の 새로운 보고서 「US HDTV Consumer Market」는 HDTV 시장이 1994년에 1億 4,000萬弗에서 2005년이면 156億弗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에 HDTV 기기 가격은 2,800弗에서 900弗로 인하될 것이 예상된다.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모델은 35~36인치의 초대형 Flat Panel 디스플레이이다.

Frost & Sullivan 社は 2002년까지 가장 일반적인 스크린으로 측면이 2~3인치나 깊게 표시하는 60인치 Flat-panel 디스플레이가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同보고서는 또한 기존의 TV 세트는 HDTV의 수신 신호를 디스플레이할 수 없으므로 쓸모없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FCC(연방통신 위원회)는 기존의 TV 보유자라도 HDTV가 도입된 후 일정 기간의 과도기 동안에는 프로그램을 계속 수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LAN, 美 광섬유 시장 성장 촉진

광섬유 데이터 통신제품 중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은 구내정보통신망(LAN) 연결 제품인 것으로 시장조사회사 Kessler Marketing Intelli-

gence 社の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섬유재료의 브릿지, 로터, 스탠드 어른형 LAN Repeater 매출이 평균 5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섬유 채널 확장기(Channel Extender) 매출도 '94년까지 연평균 15~20%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광섬유는 전문매체에서 빌딩간·구내 통신 시스템으로서 데이터 통신 표준매체의 중추로 바뀌고 있다. AT&T, DEC, IBM은 모두 중추 구조에 섬유배선 채용을 승인했으며 EIA(美電子工業會)의 빌딩배선 표준도 코어에 62.5μm의 섬유사용을 명시하고 있다.

同조사에 따르면 케이블 섬유시장은 섬유에 부착하는 인터페이스 기기 시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것은 장래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Dark" 섬유의 시장규모가 상당히 큰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앞으로 5년내에 광섬유 Internet 기기, 채널 확장기, 다중화장치, 모뎀의 시장규모는 9億 4,000萬弗에 달하게 될 것이다. 데이터통신 관련 기기에 사용되는 현지 광섬유 케이블(멀티모드)은 현재의 30萬 Km에서 1994년이면 약 90萬 km까지 증가할 것으로 조사보고서인 「U.S. Markets for Fiberoptics in Point To Point Data Communications」는 밝혔다.

Sony, '89년 美 캠코더시장을 리드

美國의 업계 정보지 「Television Digest」에 의하면 실물 크기의 VHS 모델이 지난해에도 美國의 캠코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장 잘 팔리는 캠코더 브랜드는 Sony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시장을 주름잡아 온 VHS 주력 업체인 RCA와 Panasonic과의 3자 경쟁 관계에서 1989년 매출의 15%를 차지해 모두가 건실한 성과를 올렸지만 제출된 시장점유율 평가지를 검토한 결과 Sony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Sony는 우세한 포맷인 8mm에 의해 강력히 주도되는 시장영역인 소형 유니트에 대한 캠코더 구매자들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다른 브랜드의 8mm 캠코더는 10대 베스트셀링 브랜드에 하나도 오르지 못했다.

단일 브랜드 매출로는 Sony가 단연 1위에 올랐지만 종합 업체로는 여전히 Thomson Consumer Electronics社가 미국의 최대 캠코더 판매업체로서 RCA와 GE 브랜드를 포함하여 20%의 점유율을 보였다. Panasonic과 Quasar는 종합 17%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다. Sony와 Sears에 이어 종합 5위를 차지한 기업은 Philips Consumer Electronics(Magnavox와 Sylvania)로 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가정용 VCR 테크에 관한 조사결과도 이와 큰 이변은 없었다. RCA가 11%의 시장 점유율로 브랜드 리더로서의 종래의 지위를 고수했으며 그 뒤를 Panasonic(8.5%)과 Emerson(8%)이 추격했다. Emerson, RCA, Panasonic 중에서는 RCA만이 1%의 시장 점유율 증가를 기록했다. 또한 6.5%의 점유율로 지난해 6위를 차지했던 Magnavox는 1%의 점유율 증가를 기록했다.

종합 기업별로는 Thomson社가 지난해 16%의 시장 점유율로 강력한 1위를 고수했으며 10.5%의 Panasonic-Quasar와 8.5%의 Philips

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시장 점유율 1%를 늘리기 위해 요구되었던 캠코더 매출 대수는 1988년의 2萬 400대에서 늘어난 2萬 2, 90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년도와 같은 점유율을 유지하는데만 전체 12%의 매출이 증가해야 했다.

한편 VCR의 경우, 점유율 1%는 1988년의 10萬 7,500대에서 줄어든 9萬 7,600대의 테크를 판매하면 되었다. 따라서 RCA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 증가는 100萬대가 조금 넘는 수준의 매출을 의미한다. 반면에 Magnavox의 1% 증가는 1989년에 더 적은 규모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台數 매출에서 7% 증가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표. 1989년 美國의 캠코더·VCR 시장점유 현황 (브랜드네임別 10대 순위)

Brand	Camcorders		Brand	VCR Decks	
	1989 점유율	1988 순 위		1989 점유율	1988 순 위
Sony	15.0	3	RCA	11.0	1
RCA	15.0	1	Panasonic	8.5	2
Panasonic	15.0	2	Emerson	8.0	3
Sears	9.0	4	Sharp	7.0	4
Magnavox	7.0	5	Magnavox	6.5	5
Sharp	6.0	9	GE	5.0	6
GE	5.0	6	Sears	5.0	7
JVC	4.5	7	Zenith	4.5	8
Hitachi	4.0	8	Mitsubishi	4.0	9
Zenith	2.0	10	Toshiba	4.0	10

資料 : Television Digest

DARPA와 Gazelle社, GaAs 부품 공유협약 체결

美國의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와 Gazelle Microcircuits社는 高速通信用 GaAs 부품의 개발 촉진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DARPA는 이 계약에 따라 Gazelle社에 秒당 1 Gigabit를 포함하여 더 빠른 GaAs 부품과 관련 제품의 설계 및 생산기술에 소요될 400萬弗의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그 댓가로 DA-

RPA는 데이터 및 특허사용에 대한 명백한 권리를 취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Gazelle의 연구개발 성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DARPA는 연구개발의 결과로 출현할 제품으로 투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DARPA는 미국의 디지털 GaAs 제품의 제조능력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술은 빠른 속도를 제공하며 실리콘 부품이 요구하는 낮은 전력소모를 가능케하기 때문이다.

GaAs의 잇점은 고속 데이터 연결이 핵심인 병렬 프로세서와 명령·제어용 비상통신망과 같은 군수용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하다.

Gazelle의 GaAs 집적회로는 기존의 상업용 시스템에 쉽게 내장될 수 있도록 표준 전압입·출력 레벨에서 동작한다. 이번 계약은 DARPA가 장려금 제공을 통해 첨단 R & D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후 처음으로 체결한 것이다.

日本, 수입촉진방안 모색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엄청난 무역흑자를 축소하라는 외국의 정치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은 수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많은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방안으로는 향후 3년 동안 외국의 주요 기업을 포함하여 일본의 제조업체에게 수입증가시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400億弗 이상 수입시 이 방안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일본으로의 수출시간 및 비용도 삭감되며 제품 마진 증가도 보장받게 된다. 아울러 많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도 제거될 것이며 수입확대를 위한 대출도 강화될 것이다. 일본의 수출입은행은 일본에서의 판매 강화를 위해 미국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16億弗의 수입장려기금을 저리로 제공하게 된다.

프랑스의 電機·電子工業, 競爭力 회복

'80년대 初부터 低迷했던 프랑스의 電機·電子工業이 競爭力을 회복했다.

프랑스 業界 團體(FIEE)에 의하면 작년에 업계의 매상고는 實質 7% 增인 2,805億 프랑에 달해, '80年 이후의 고수준을 회복함과 함께 성장률의 點에서 英·美國을 상회했다.

특히 확실한 재료가 되고 있는 것은 수출의 확대인데, 前年對比 9.4% 增인 1,376億 프랑에 달했다. 무엇보다도 수입이 11% 增인 1,494億 프랑으로 팽창해 무역적자가 30億 프랑 증가하여 118億 프랑에 달했다.

FIEE는 군수관계는 별도로 하고今年の 전망도 밝다고 표명했다.

작년의 무역적자 중 對日分은 1089億 프랑, 한국, 대만, 東南아시아 諸國分을 첨가하면 256億 3,000萬 프랑에 달해, 前年對比 32億 5,000萬 프랑 증가했다.

FIEE는 EC(歐洲共同體) 레벨에서도 日本·아시아 諸國과의 電機·電子分野에서 무역적자가 확대된 것을 지적, 이 諸國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규제강화를 정부에게 요청했다.

프랑스의 JEME, JESSI와 共同 步調

프랑스의 JEMI는 JESSI(歐洲次世代 半島體 共同開發機構) 프로젝트의 개발 테마인 「裝置와 材料」에 참가한다고 결정하고 今後 JESSI와 공동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JEMI는 Joint Equipment Manufacturers Initiative의 약칭이다.

프랑스의 반도체 제조장치, 웨이퍼, 가스 등 반도체 제조관련 메이커로 구성되어 있다.

JEMI는 JESSI의 프로젝트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JESSI에서 개발한 제조장치 관련 know-how를 會員企業에게 이전, 프랑스에서 반도체 개발을 측면에서 지원해 나아갈 계획

이다.

JEMI에서는今後 외국의 반도체관련 메이커가 국내(프랑스)에 연구개발거점을 설치하면 JEMI로의 참가를 인정할 방침인데, 장래는美國官民合同의 반도체 개발기업 Sematech와 같은 존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탈리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장

이탈리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장은 90~'94년에 평균 17.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美國의 시장조사회사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IDC)의 이탈리아事務所에 의하면 작년의 소프트 시장의 매출고는 6兆 7,000億 리라였다. 이것이 '94년에는 15兆 리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하드수요의 신장은 7.5%로 작년의 10兆 7,000億 리라에서 17兆 리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의 소프트 산업은 전형적인 중소기업 업종으로 기업수 4,000社에 대해서 종업원 5萬 4,000名이다. 작년의 매출고가 1,000億 리라를 초과한 기업은 7社 뿐으로 기업의 半數는 종업원 5名 이하이다.

컴퓨터 메이커인 Bull社가 남부 이탈리아에 대한 3年間 4,200億 리라의 투자계획의 일환으로서, 소프트 개발과 정보공학기기의 공장을 건설한다.

台灣의 퍼스컴 業體, 日本進出에 全力

台灣의 퍼스컴 대기업은 日本 시장 진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宏碁, 神通, 佳佳科技, 大衆 등의 메이커는 모두 日本에 子會社 및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이業者들은 현재는 日本에서 실적이 상승되고 있지 않지만 3年 내지 5年을 목표로 日本市場에 침투해 일정한 점유율을 확보할 기세이다.

4社중 宏碁는 住友商事的 합작으로 同社 브랜드의 퍼스컴을 판매하고 있다. 합작회사의 자본금은 1億円이다. 宏碁는 5年後에는 업무가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神通은 日本에 100% 子會社를 설립하여, 同社의 퍼스컴을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日本에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 同社도 3年 내지 5年 이후에는 실적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외에 범용 컴퓨터는 아직 對日本으로의 퍼스컴 판매업무를 개시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日本企業과의 합작은 銅箔基板의 판매에 한정되어 있는데, 기회를 보아 퍼스컴의 판매를 개시할 계획이다.

세계의 캠코더 시장

세계의 캠코더 시장에서 8mm 방식이 여전히 우위. -美國의 정보·통신·서비스 회사 NYNEX社 산하인 시장조사회사 BIS Macin Tosh가 최근 발행한 리포트 「Consumer Electronics Information Service」에 의하면 작년에 美, 日, 歐에서 판매된 캠코더는 590万台, 금액은 65億弗이었다.

방식별로는 8mm가 금액의 38%로 톱을 차지했고, VHS-C가 33%, 풀 사이즈 VHS가 29%를 나타냈다.

美國에서는 8mm로 반격할 기운이 보여지는 데, 풀 사이즈機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강하고, 역으로 日本에서는 VHS-C, 歐洲에서는 8mm가 강력하다.

풀 사이즈機가 가정용 VTR과 직접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美國에서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는 한편, 歐洲에서는 Sony의 건투가 8mm 우위의 견인력이라고 同리포트는 분석하고 있다.

全世帶에서 차지하는 캠코더의 보급률은 日本이 13%, 美國이 8%, 歐洲가 4%로 캠코더는 '90年代에 가정용 전자에서 붐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 同리포트의 예측이다.

美·日·歐의 캠코더 방식별 시장점유율(금액기준)

구 분	미국	일본	유럽	합계
8mm	28%	43%	45%	38%
VHS-C	10%	55%	43%	33%
VHS Full	62%	2%	12%	29%

高品位 TV의 國際規格

서독 뒤셀도르프에서 개최한 國際無線通信諮問委員會(CCIR) 總會에서 高品位 TV(HDTV)의 국제규격이 日·歐의 상위점을 승인한 채 선택되었다. 일본 우정성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국내규격을 심의중인 電氣通信技術審議會(郵政省의 자문기관)가 答申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郵政省은 내년 1월까지 關係省令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91년 가을에는 세계에 선행하여 HDTV의 실용방송이 개시될 조건이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된 국제규격은 프로그램 제작시에 대한 것인데, 27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爭點이 된 TV 화면의 橫線인 走査線本數와 1秒間의 화면수를 나타내는 Field 주파수 등 4 항목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정된다」 등의 문장으로 표현되어 各國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머지 세 항목은 화면의 縱橫比, 走査線의 構成粒子數, RGB의 3原色의 조립 비율 등이다. 각각 구체적인 數字와 方程式 등이 결정되었다.

CCIR은 ITU(國際電氣通信聯合)의 하부조직인데, 總會에서의 결정사항은 가맹국을 구속한다.

日本은 4 항목에 대해서도 통일을 호소했으나, 日本 메이커의 수출공세를 염려하여 歐美諸國은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

美·日·歐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각각 HDTV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日本 메이커가 歐美에 HDTV 機器를 수출할 경우 각각

歐洲仕様과 美國仕様の 제품을 개발, 제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日本은 NHK의 「Hi-Vision」 방식에 의한 국제규격통일에 실패했으나, 同方式으로 실험방송을 개시한다. 매일 1시간 실험방송을 하고 있는 NHK는 '91년 여름에 발사한 방송위성을 사용하여 同年 가을에도 Hi-Vision에의 본 방송을 개시할 계획으로 있다.

美·日の 향후 전자산업 전망

최근, 美商務省은 日本이 '90年代 전반에 전자제품의 생산에서 美國을 추월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선 「소프트웨어와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 부문에서 美國은 '84년 이후 시장 점유율을 계속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美國의 전자제품 생산은 현재 年間 1,800億弗에 달해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런 경향이 계속되면 '94년까지 日本이 美國을 추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美企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고서는 조사·개발비의 항구적 공제와 獨禁政策의 변경, 不公正輸入과 외국에 의한 特許侵害에 대한 규제강화 등 대응책을 들고 있다. 단 日本企業의 추월에 대한 대응은 대부분을 민간기업에게 기대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퍼스컴, 수퍼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 지금까지 美國이 독점해 온 시장에서 美國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 반도체의 기본인 실리콘 웨이퍼의 생산에서도 실질적으로 모든 생산설비가 日本과 歐洲의 손에 있다고 밝혔다.

日本의 전자제품의 수출액은, 1987년에는 380억弗에 달했고, 또한 美國의 수출은 350億弗, 歐洲는 260億弗에 달했다.

기업의 성장력에 비교하면 '83년부터 '87년 사이에 日本의 전자 機器 업계는 매출이 27.9%로 신장한 데 대하여, 美企業은 10.8%의 신

장을 보였다.

세계의 電子産業 판도가 변경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또 한가지 數字는 전자 관련 특허數이다. '87년에 美國에서 특허취득이 많았던 업체는 Canon, 日立, 同社의 順이었고, 4번째에 美國의 General Electronic이 등장, 5번째가 네덜란드의 Philips였다.

美半導體 업체, 蘇聯과 電子機器 生産提携에 合意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Syprus Semiconductor 社は 6月 8日, 모스크바에 本部를 둔 정보 전자국제센터와 컴퓨터 칩 電子機器의 생산 제휴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美蘇間의 컴퓨터 분야의 생산협력 第1號이다. 칩은 통신시설 외 高品位 TV의 부품에 사용된다.

Syprus 社에 의하면 同社は 蘇聯에서 개발된 반도체 조립에 관한 新技術의 제공과 美國 내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취득하는데 대한 담보로써 蘇聯側에게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한다.

실리콘 밸리의 컴퓨터 업계는 최근, 첨단 기술의 개발과 함께, 제조 및 품질관리면에서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파트너를 찾는 동향이 눈에 띄고 있는데,今回の 합의는 美·蘇 쌍방의 Need가 일치한 결과로 보여진다.

美 Thomson, Home Theater 發表

Thomson Consumer Electronic 社(TCE)

는 최근, 同社 최초의 Home Theater TV 「Color Track 2000 Home Theater」를 포함하는 TV와 VTR의 신제품을 발표했다.

이번 신제품 중, TV의 High-end 기종은 1채널 당 10w의 출력과 Hall, Matrix 및 돌비의 서라운드 사운드 기능을 장착하고 있다.

최근 NEC가 TV 등의 일반적인 가정용 전자기기 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결정함에 대하여 Thomson 사는 동 현상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同社の 임원들은 Thomson이 대형화면 TV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기타 메이커의 공급에 의존해 왔으나, 최근에는 自社 생산으로 변경했다.

Thomson은今後 5.5 인치의 포터블을 제외하고, 컬러 TV를 전부 社内에서 생산한다고 한다.

Thomson은 RCA 브랜드의 Projection TV, 52 인치 2 기종과 46 인치 1 기종을 발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고 기종인 P52150 CP는 희망소매가격 2,799弗, 46 인치인 P46150 WK는 同 2,449弗에 출하할 예정이다.

또한 今年에 인디애나 州의 마리온에 있는 공장을 확장하여 31 인치 및 35 인치의 브라운관의 생산을 개시한다고 한다.

Thomson이 생산하는 「대형 스크린」 브라운관 및 27 인치 브라운관은 Amber Shadow Mask, 디지털 콤, 輝度, 콘트라스트를 조절하는 감마 수정 등의 기능을 장비한 것이 될 예정이다.

